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윤 성 희

11월은 위령 성월이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달일 뿐만 아니라 언젠가 찾아올 우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미리 준비해 보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위령 성월'이란 어쩌면 '죽음'이 짓누르는 무섭고 두려운 달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각해 보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하느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늘로 돌아간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며 자연스러운 일이다. 위령 성월을 맞이하여 아이들에게 '죽음'이란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언젠가 나에게도 일어날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려 주자. 교리를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죽음'에 관련된 기사나 책, 영화, 장소 등을 조사하게 한 후 아이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어떻게 죽음을 바라봐야 할지 함께 나눠 보자.



▲요놈 요놈 요 이쁜놈(천상병, 답게, 2000년)

'죽음' 그것은 하늘로 돌아가는 것 - 귀천(歸天)

천상병 시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귀천'은 1979년에 발표된 시다. 시인은 '귀천'이라는 제목처럼 각 연을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로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 없이, 하늘을 당연히 돌아가야 하는 종착지처럼 여기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천상병 시인은 삶을 '소풍'으로, '하늘'은 우리가 소풍을 마치고 돌아가야 하는 영원한 안식처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즐거운 소풍이라 표현하며 먼 훗날 하늘 나라에서 영원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지금 충실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를 CCM 가수 '좋은날 풍경'이 노래로도 발표했는데, 서정적인 시가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나 듣는 이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한다.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달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죽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헤어짐 -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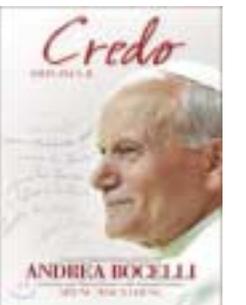
성심수녀회 소속의 스키 히데코 수녀는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를 통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과 나눈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어느 날 우연히 '죽음'을 체험한 수녀는 그 후로 시용 선생과 함께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임종하기 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동안 삶 안에서는 가려져 볼 수 없었던 진실을 보게 된다. 삶은 한없이 고귀하기에 서로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덧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의 고귀함을 깨닫게 해 주는 아름다운 가르침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죽음' 그것은 또 다른 축제 - <Credo : John Paul II>

'Credo : John Paul II'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 모습과 더불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임기 중에 만났던 각종 지도자들,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함께한 순간 등을 교차 편집한 작품이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죽음과 이를 애도하는 수많은 세계인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생전에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순례자의 삶을 살며 세계인들에게 전하신 말씀도 함께 담겨 있다. 이미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전해진 바 있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은 슬픔과 기쁨, 존경과 희망이 뒤섞여 진한 '감동'을 만들어 낸다. 우리는 애도의 눈물과 환희의 박수가 공존하고, 슬픔의 눈물과 희망의 깃발이 함께 휘날리던 그분의 장례식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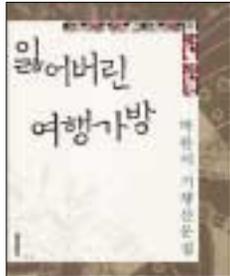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스즈키 히데코, 최경식 역, 생활서사, 1999년)



▲Credo : John Paul II (Warner Music, 2006년)

해, 그리스도의 은총을 간직한 '죽음'은 또 다른 축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십시오.'라는 그분의 마지막 유언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산 총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며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이끈다.



▲잃어버린 여행가방(박완서, 실천문학사, 2005년)

‘죽음’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감동 -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감동’ (『잃어버린 여행가방』中)

소설가 박완서의 기행 산문집 『잃어버린 여행가방』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에 한국의 조문단 자격으로 참석했던 그녀가 축제에 가까운 장례식을 보고 느낀 것들을 담아 놓았다. 위에서 언급한 <Credo>를 구할 수 없다면, 거룩하고 환희에 넘치는 장례식을 경험한 그녀의 글을 통해 그 자리의 감동을 만나 보자.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감동 - 바티칸 기행> 편 p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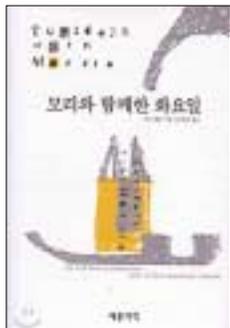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감독·송해성, 출연·강동원 외)

‘죽음’ 그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소설가 공지영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섬 없이 자살을 시도하는 유정과 어쩔 수 없이 살인 사건에 개입돼 사형수가 되어 버린 윤수의 서로 다른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자신의 의지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유정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곧 사형에 처해지게 될 운명을 맞이한 윤수는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다른 시각으로 삶과 죽음을 바라보게 된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유정과 윤수의 변화를 통해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생명'이라는 고유한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는 일인 자살과 사형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죽음’ 그것은 삶의 또 다른 모습 -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미치 앨봄이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대학 스승인 모리 슈워츠와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 나누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엮은 책이다. 십여 차례의 만남을 통해 스승과 제자가 나누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우리는 죽음 또한 삶의 일부분임을,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미치 앨봄, 세종서적, 2002년)

‘죽음’ 그것은 사랑을 껴안고 떠나는 일 - <MBC 휴먼다큐 '사랑' - '안녕, 아빠'편>

2007년에 방영된 MBC 휴먼다큐 '사랑'은 사람이 삶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보여 주었다. 그 중에서도 '안녕, 아빠' 편은 죽음의 문턱에서 있는 주인공이 남은 가족들

과 어떻게 보듬고 사랑하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 주었다. 주인공은 한 수도회 수사인 주인공의 동생에게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듣게 된다. 그러자 주인공은 그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 동안 더 깊은 사랑으로 가족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 준다. 가족 간의 사랑을 그린 이 다큐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준다.

‘죽음’을 통해 깨달은 화해라는 이름의 천국 -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저자 미치 앨봄이 쓴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은 팔십 평생을 놀이 공원의 정비공으로 살아온 주인공이 어느 날 사고로 죽은 뒤, 천국에서 과거 자신의 삶에 등장했던 다섯 사람을 차례로 만난다는 이야기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천국이란 자신의 삶, 그리고 삶에 등장한 모든 이들과 화해하는 곳이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죽어서가 아니라 현재 내 삶에서 이런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현실도 천국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MBC 휴먼다큐 '사랑' - '안녕, 아빠'(연출·유해진, 작가·노경희, 2007년)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 집회 38, 16-23

위령 성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의 죽음을 지켜보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집회서 38장 16절 '애도' 편에는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방법에 대해 나타나 있다. 죽은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애도를 한 후 자신의 슬픔을 달래며, 죽은 이는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 그에 대한 추억만을 남겨 두고 그에 대해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이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실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미치 앨봄, 세종서적, 2005년)

11월, 위령 성월을 맞이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란,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네.' 하고 떠날 수 있게 늘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준비한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무섭고 두려워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네, 주님!' 하고 달려갈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기 전에 갖춰야 하는 자세가 아닐까.

윤성희_아가다

서울대학교 난곡동 성당 중고등부, 서울대학교 중고등부 사목부(편집부)에서 12년 동안 교사로 활동했다. 방송 작가, 작사가, 카피라이터, 문화 기획 등 다수의 경력이 있으며 현재 콘텐츠 기획자로 활동 중이다.